

물가상승률 3% 초반 안착...둔화세 완연

●호남통계청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전년동월비 광주 3.2%·전남 3% 증가...19개월만 최저 휘발유·경유 가격 2년 전 수준 회귀...석유류 둔화 기어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3% 초반대에 안착했다.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는 양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미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11.33(2020=100), 111.74로 전년 동월 대비 3.2%·3.0% 상승했다.

이는 양 지역 모두 2021년 10월(광주 3.2%·전남 3.4%)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도 3.3%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2.6%)와 전북도(2.9

%), 제주도(2.5%)는 2%선까지도 내려왔다. 올 1월만하더라도 광주·전남 물가상승률은 각각 5.3%·5.5%를 기록했지만 2월(광주 5.1%·전남 4.9%), 3월(광주 4.7%·전남 4.1%), 4월(광주 3.9%·전남 3.5%)에 이어 5월까지 내리 하향 곡선을 그리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광주 2.7%, 전남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 안정세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전망 등의 영향 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기준 광주지역 주요소에서 휘발유·경유

는 각각 리터(ℓ)당 평균 1천575원·1천384원에 판매됐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에 가격이 치솟아 지난해 6·7월만 하더라도 평균 판매값이 2천원을 넘어갔던 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은 이후 하락세를 거듭한 끝에 2021년 6월 월간 평균 판매값(휘발유 1천508원·경유 1천365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에 지난달 지출목적별 물가동향에서 휘발유(광주-17.2%·전남-16.5%), 경유(광주-24.8%·전남-23.8%) 모두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다만, 석유류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던 외식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6.6%·5.4%로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이밖에 품목성질별로 광주에선 농축수산물(-1.2%)은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1.3%), 집세(0.5%)·공공서비스(0.9%), 개인서비스(5.8%) 등이 상승, 전남에선 농축수산물(2.1%), 공업제품(0.8%), 집세(0.7%), 공공서비스(0.7%), 개인서비스(5.2%) 일제히 증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속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광주 22.5%, 전남 22.7% 상승,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중반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3%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시원 기자



목포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1조 달성탑 수상

창립 이래 최초...조합원·고객 최고 서비스 제공

목포농협은 4일 "최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이성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월 정례대회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달성 시점은 지난 4월 말로 1973년 2월 목포농협 창립 이래 최초로 이뤄낸 성과다.

목포농협은 지난 2021년 상호금융 대출금 7천억원을 달성하는 성과에 이어 이번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을 달성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

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를 계기로 신용사업과 경제·유통을 아울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합원과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수 목포농협조합장은 "목포농협의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 달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다양한 금융업종간의 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조

합원과 지역민, 지역사회의 애정과 신뢰에 힘입어 이뤄 낸 것"이라며 "목포농협 1천988명의 조합원과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수금 1조원 달성을 통해 목포농협은 농사 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식량을 지켜나가는 농업·농촌과 농업인 지원에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법제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부영그룹 이회법 회장, 부영그룹 창업주 이종근(왼쪽 네 번째) 회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 100억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 이종근 창업주, 공군 100억 기부

군 시절 감사 마음 전달...하늘사랑 장학재단 순직 유가족 지원

국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호텔에서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부영그룹 이회법 회장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10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창업주 이종근 회장의 뜻을 전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가족들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고 긍지를 가지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공군 출신인 부영그룹 창업주 이종근 회장은 1961년 군입대 당시 신장 188cm의 장신으로 인해서 항공병학교에서 불합격이 언급됐으나 군생활 5년 만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대가

에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에 기여하고자 했었다.

이번에 기부한 100억원 이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공군예비역 모인인 로카피스의 회장을 맡아 공군 후원은 물론 예비역과 현역 간 친교를 맺는 가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회법 부영그룹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유자녀들이 부모님의 애국정신에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을 대표해 이종근 회장님과 부영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장님의 기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학금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한은 목포본부, 전남서남부 中 小 금융지원협 개최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4일 "최근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중소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서남부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 목포상공회의소, 대아산업(주), ㈜보원엔앤피, ㈜유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기업들은 최근 선박 수주 증가 등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대체할 수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